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국채금리 하락, 반도체주 반등, 미국증시 상승

- 미국증시 주요 지수 동반 강세: 다우 +0.30%, 나스닥 +0.66%
- 국제유가 이틀째 하락..국채금리 동반 하락
- 미국 8월 소비자 신뢰지수 두 달 연속 하락

Summary

미국증시 상승

현지시각 8월 25일 화요일 미국증시는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반도체주가 반등하자 일제히 상승. 다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잭스홀 미팅에서의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발언, PCE 물가지수 발표 등 주요 일정을 앞두고 있는데 따른 경계감을 반영하며 장 중 고점에서 상승 폭은 축소했으며 주요 지수 모두 1% 안쪽에서 제한된 상승으로 거래를 마침.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0.30% 상승한 53,577.40에 마감했고 S&P500 지수는 0.32% 상승한 7,677.28에 거래를 마침. 나스닥 지수는 0.66% 상승한 26,151.30에 마감했고 나스닥 100 지수도 0.64% 상승. 러셀2000 지수는 0.50% 상승했고 변동성 지수 VIX는 2.52% 하락.

(다우 +0.30%/ S&P500 +0.32%/ 나스닥 +0.66%/ 러셀2000 +0.50%)

국채금리 하락..반도체주 반등

이날 나스닥 지수의 반등은 전일까지 부진했던 반도체주가 일제히 반등한 영향. 반도체주는 최근 장기채 중심의 금리 급등과 맞물려 섹터에 자금을 대고 있는 빅테크의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주가 하락으로 반영해 왔으나 최근 하락으로 부담을 일부 완화한 가운데 이날 금리가 하락하자 반등. 엔비디아와 마벨 테크놀로지 등의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으로 다만 상승폭은 제한적.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1.44%)

한편 이날 금리 하락은 유가 하락에서 촉발되었음. 국제유가는 전일 7거래일만에 하락 전환한데 이어 이날까지 이틀 연속 하락. 전일 스코트 베슨트 미 재무장관이 이란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내용의 경제 제재의 구체안을 공개했지만 오히려 경제적 압박이 시작됨으로써 군사적 긴장 재고조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는 해석, 또 미국이 철수했던 중동 지역 대사관 내 외교관 재파견을 준비 중이라는 뉴욕타임스의 보도, 이어 미국과 이란이 종전 관련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보도까지 유가 하락에 힘을 보탬. 미국증시 마감을 앞두고는 러시아 국영 통신사를 통해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포함하는 휴전안에 합의했으며 이는 며칠 내로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전해지기도 했음.

7일만에 브렌트유가 배럴당 90달러를 하회하는 등 유가가 의미있는 수준의 낙폭을 보이자 국채금리는 30년물 기준 2주만의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고 10년물과 2년물 사이 금리 차이는 45.47bp 수준으로 축소됨.

한편 유가 재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고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등의 고리로 금융시장 내 우려 요인으로 남아있음. 이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모든 국가는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부채와 재정적자가 지속 가능한 경로에 있도록 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유가 재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 이는 결국 다시 각국 정부의 차입 비용과 경제 성장에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할 요인이라는 설명.

8월 소비자신뢰지수 두 달 연속 하락

국채금리 하락에는 유가 이외에도 이날 발표된 부진한 소비자 심리 지표가 영향을 미침. 콘퍼런스보드(CBS)가 집계해 발표한 8월 미국 소비자신뢰지수는 89.4로 전달 대비 0.8포인트 하락, 시장 기대 90.2를 하회했으며 두 달 연속 내림세를 기록. 고유가와 생활비 부담, 고용 둔화가 소비자 심리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소비자의 단기 미래 전망을 반영한 기대지수가 5.8포인트 하락, 68.2를 기록. 콘퍼런스보드는 기대 지수가 80을 하회할 경우 향후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 다만 현재 상황 지수는 6.8포인트 상승한 121.2로 4개월만에 반등. 미래에 대한 다소 악화된 전망을 바탕으로 하락한 소비자 신뢰지수는 연준의 금리 인상 명분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이날 금리 하락 재료 중 하나로 반영.

한편 경제지표로는 현지시각 수요일(26일) 발표될 7월 PCE 가격 지수가 이번주 가장 주목할 지표로 꼽힘. PCE 가격지수는 연준이 주목하는 물가 지표로 9월 FOMC를 앞두고 연준의 인플레이션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7월 수치는 유가 안정을 기반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소 완화하는 쪽으로 발표될 것으로 기대.

특징종목

S&P500 구성 섹터 중에서는 에너지(-1.70%)와 필수소비재(-0.87%)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으며 이외 산업재(-0.30%)와 재량 소비재(-0.27%)도 소폭 하락. 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군은 모두 상승했고, 특히 정보기술(+0.98%), 통신서비스(+0.46%) 섹터 상승이 시장 전체 상승을 주도함.

반도체주 반등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엔비디아(+2.19%)가 무려 8거래일만의 반등에 성공했고 이외 반도체주도 대체로 동반 상승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1%대 반등.

AMD(+4.91%)는 CPU 시장에서 인텔(+0.25%)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레이먼드제임스 전망과 함께 강세. 레이먼드제임스는 AMD의 투자의견을 기존 ‘매수’에서 ‘강력 매수’로 상향했으며 목표가는 641달러로 제시. 데이터센터와 PC 시장에서 AMD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품 성능과 시장 점유율 개선이 향후 실적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란 판단.

반도체 설계 업체 마벨 테크놀로지(+4.84%)는 구글(-0.32%)과의 맞춤형 반도체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가 지난주 후반 전면에 등장한 가운데 서스퀘어나, 로젠블랫 등이 목표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면서 강세.

이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2.48%)와 시게이트 테크놀로지(+3.40%), 웨스턴 디지털(+3.53%), 램 리서치(+1.45%), KLA(+0.97%) 등의 일부 메모리/스토리지, 장비주 등이 상승.

반면 반도체주와 대체로 반대로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하락했는데 팰로앨토 네트워크스(-3.13%)는 JP모건이 강력한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를 앞세워 목표가를 기존 326달러에서 384달러로 상향했지만 주가는 약세를 보였고 클라우드스트라이크(-2.78%) 역시 전일 제프리스의 목표가 상향 조정이 있었지만 반도체주 상승과 방향을 달리 하며 하락 마감.

한편 실적 발표 전부터 옵션 시장에서 풋 베팅이 우위에 서는 등 실적 발표 후 급락 가능성을 미리 반영해왔던 인튜이트(-3.37%)는 마감 이후 발표한 전분기 실적이 예상을 상회했지만 현재 진행 분기 조정 EPS 전망이 시장 예상을 크게 하회한 가운데 시간외 거래에서 10% 이상 급락.

줌 커뮤니케이션스(-3.70%) 역시 현재 진행 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 시간외 거래에서 5% 이상 추가 하락.

금리 하락: 일부 테마 강세

이날 금리 하락과 맞물려 비트코인, 양자 컴퓨팅 등 테마 영역에 속하는 기업들의 주가는 대체로 강세.

비트코인 가격이 장 중 8만 달러를 상회하는 강세를 보이자 코인베이스 글로벌(+4.28%), 로빈훅 마케츠(+8.17%), 서클 인터넷 그룹(+4.90%), 스트래티지(+3.42%), 마라 홀딩스(+5.81%), 라이엇 플랫폼스(+6.50%) 등의 관련주가 강세.

채굴 관련주는 당장의 비트코인 가격 상승 이외에도 송전망 관련 모멘텀에 대한 기대를 함께 받고 있는데 모건스탠리는 미국 뉴욕주와 텍사스주 등에서 전력 부족을 이유로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 승인을 지연하자, 송전망 접속 권한을 이미 확보한 가상자산 채굴 기업의 인프라 가치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 기획보 전력망을 보유한 채굴 기업이 규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인데 사이퍼 마이닝(+6.18%), 허트 8(+7.47%), 갤럭시 디지털(+8.54%), 마라 홀딩스(+5.81%), 라이엇 플랫폼스(+6.50%) 등을 수혜 가능 종목으로 언급.

양자 컴퓨팅 관련주로는 아이온큐(+2.41%), 쿼티넘(+3.50%), 리게티 컴퓨팅(+3.48%), IQM 쿼텀 컴퓨터스(+2.49%), 쿼텀 컴퓨팅(+2.67%), 디웨이브 쿼텀(+3.59%) 등이 동반

상승. 다만 디웨이브 퀀텀은 존 마코비치 최고 재무책임자(CFO)의 은퇴 발표 여파로 시간 외 거래에서 하락 전환하기도.

이외 특징주

메타 플랫폼스(+1.97%)가 향후 수 주 내 소비자용 AI 에이전트 플랫폼을 출시하고 10월에는 새로운 AI 모델을 공개하는 등 AI 생태계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는 디 인포메이션의 보도가 있었음. 보도에 따르면 소비자용 AI 에이전트의 이름은 '해치'로 불리고 있으며 오픈 클로를 기반으로 이르면 8월 말이나 9월 초 출시할 예정. 메타는 이 해치 수익화를 위해 사용량에 따른 요금 차등 적용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모더나(+14.36%)는 머크(+3.84%)와 공동 개발 중인 암 백신에 대한 기대와 울프리서치 등의 투자의견 상향을 반영하며 상승. 항암제를 개발 중인 바이오기업 쿠라 온콜로지(+9.60%)는 CEO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 소식에 급등.

넷플릭스(+2.77%)는 울프리서치가 목표주가를 기존 84달러에서 95달러로 상향. 2분기 구독자 수와 이용지표가 다소 부진했지만 이는 사업의 근본적 약화가 아닌 신규 콘텐츠 공개 시점의 영향이라는 결론으로 3분기 예정된 콘텐츠 공개 일정을 감안할 때 우려는 과하다는 의견. 투자의견 매수 유지.

스페이스X(+2.19%)는 루이지애나에 1,000억 달러 규모의 스타쉽 발사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강세. 일론 머스크 CEO는 '스타베이스 루이지애나'로 명명한 이 발사 시설이 조성되면 연간 수천 회의 발사를 지원하게 될 것이며 루이지애나에 1만개 가량의 흥미로운 일자리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함.

스포츠용품 유통 업체 덱스 스포팅 굿즈(-30.68%) 주가가 급락. 회사가 발표한 전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을 하회했으며 특히 신발 시장의 영업환경이 도전적이라고 평가. 가격 할인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익성 우려까지 높아졌다는 설명. 나이키(-3.12%), 온 홀딩(-2.30%), 크록스(-2.34%) 등도 동반 약세.

베스 앤드 바디 웍스(-8.29%) 역시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다소 부진한 실적과 가이던스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에 하락.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국채금리 하락

미 국채금리는 중장기물을 중심으로 이틀째 하락. 미국과 이란 사이 군사적 긴장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국제유가가 이틀째 비교적 큰 폭 하락해 국채금리 하락을 견인. 이날 발표된 소비자 심리 지표가 부진해 금리 하락을 압박했고 오후 들어 재무부가 실시한 2년물 국채 입찰은 수요가 양호한 가운데 수익률도 시장 예상보다 낮게 결정돼 역시 금리 하락 재료가 됨.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는 5.8bp 하락한 4.1741%를 기록했고 벤치마크인 10

년물 금리는 6.7bp 하락한 4.6288%를 기록. 만기가 가장 긴 30년물 금리는 5.9bp 하락한 5.1651%를 기록.

시카고 상품 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오는 9월 금리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을 전장 40% 초반대에서 30% 중반대로 낮춰 반영. 10월까지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50% 초반대로 반영.

달러 가치 하락

미국 달러화 가치는 미국과 이란의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며 국제유가가 하락하자 함께 약세. 장 마감을 앞두고 러시아 통신사에서 나온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 보도 역시 달러 약세폭을 키웠음. 이날 발표된 독일 IFO 경제연구소의 8월 기업환경지수가 시장예상을 웃돌고 2분기 독일 GDP 확정치가 전분기 대비 0.3% 증가하며 잠정치 대비 개선되는 등 유로존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여 유로 강세-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음.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0.09% 하락, 98.911을 기록했고 유로-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0.12% 상승.

전일 서울 외환시장 주간거래에서 전장 대비 3.70원 상승한 1,386.10원에 마감한 달러-원 환율은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0.40원)를 감안 시 서울 환시 주간장 증가 대비 3.80원 하락한 1,381.90원에 최종 호가됨.

국제유가 이틀째 하락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 사이 군사적 긴장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이틀 연속 하락. 뉴욕타임스는 이날 미국이 철수했던 중동 지역 대사관 외교관들을 다시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이는 근시일 내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이 재개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진단.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미국이 전일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의 구체안을 공개했지만 한편 이란에 해상 봉쇄 중단과 제재 해제를 제안했으며 그 조건으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 대리 세력의 공격 중단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옴. 추가적인 긴장 고조 없이 온건한 상태에서의 물밑 협상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자 국제유가는 전일 7거래일만에 2%대 하락으로 반락한데 이어 이날 3% 이상 추가 하락.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3.12% 하락한 배럴당 82.36달러를 기록, 브렌트유 10월물은 5.39% 하락한 배럴당 88.58달러를 기록. 브렌트유 증가가 90달러를 하회한건 지난 14일 이후 7일만에 처음.

이달 초 4,000달러 수준에서 시작된 반등으로 저점 대비 20% 가까이 상승, 전일 3개월래 최고를 기록한 국제 금가격은 트로이온스당 4,700달러선의 저항에 부딪혀 보험권에서 등락함.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